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엔진소리

코리아 벤처의 경쟁력 Uproad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다른 아시아 경제국들을 상대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경제국으로 자리잡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내수시장과 아시아시장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해보자

■
■
■

독자 브랜드 전략

점점 국가의 개념은 축소되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어가면서 회사와 브랜드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마존닷컴의 CEO 제프 베조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몰리는 이유가 책값이 나 구입의 용이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마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브랜드는 기업의 자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에서 품질로, 품질에서 다시 브랜드로 이전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한발 앞서 MP3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레인콤은 사업초기부터 한국, 홍콩,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착실하게 글로벌화를 준비하였고 자사 브랜드 '아이리버'의 브랜드 가치창출에 힘을 쏟았다.

현재 레인콤은 아이리버로 세계시장에서 최강 애플과 겨루고 있으며, 워크맨 왕국 일본시장에서도 세계일류기업들과 Major League중이다.

■
■
■

세계시장을 염두한 기획과 마케팅

상품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국가 브랜드와 국가이미지 역시 무시 못할 무형의 자산이다. 경쟁력을 갖춘 국가이미지의 부재 속에서 한번도 돈을 받고 팔아보지 못한 우리 연극을 브로드웨이에 당당히 입성시킨 기업이 있으니, '난타'로 더 잘 알려진 CT벤처의 PMC가 바로 그곳이다.

그 성공 이면에는 창작단계에서부터 해외 수출용이라는 확실한 타깃설정이 선행되었다. 언어적 한계를 넘버벌 퍼포먼스 형식으로 극복한 발상의 전환, 브로드웨이의 show doctor를 통한 4차례에 걸친 작품수정으로 세계 어디서나 통할 보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국가이미지의 극복을 위해 세계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하였고, 현지 에이전시를 '복덕방'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브랜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다양하게 공연상품을 재가공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
■

IT강국 인프라

내수시장은 이미 그 성장 한계에 다다랐고, 몇몇 대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놓은 상황에서 틈새시장의 공략 없이는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작지만 강한 이른바 소강벤처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의 검증은 마치고, 잘 갖추어진 통신인프라를 도약대 삼아 빠르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의 컴퓨터 보안업체들과 NHN의 한게임이 보여준 해외진출은 단연 돋보이는 성과물이다.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산업의 발달로 우리는 이미 세계의 선두자리에서 IT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소비와 창조라는 인터넷의 양단이 균형 있게 조절된다면 이 또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들려오는 끝없는 채찍소리

세계 벤처들 경쟁력 Downroad

현재 우리나라에는 20여 개의 벤처클러스터에서 수백, 수천의 벤처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클러스터를 완성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지속적인 R&D에 힘썼던 나라 등을 통해 코리아벤처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경쟁력을 알아보자.

최근 세계 각국은 빠르게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은 新竹단지를 통해 외국계 자금 및 인재가 영입되는 글로벌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인도는 공용어인 영어를 앞세워 우수한 인적자원 영입으로 방갈로르 단지의 성공을 일궈냈다. 대만과 인도의 벤처클러스터는 다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네트워크를 확장, 거대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벤처기업의 재탄생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인적네트워크가 모인 거대한 벤처생태계로, 세계 각국의 벤처기업들이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적·사업적 이슈에 대한 기업간 상호학습과 신속한 제품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켜 상호교류에 힘쓰고 실리콘밸리 진출에 더욱 노력하여야겠다.

국토 전역이 IT산업단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스라엘은 보안·암호·이미지전송 데이터 처리를 전공한 대졸자들을 군에서도 동일 분야에 근무토록 해 4년 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총 8년 간 이론과 실기를 터득하는 셈이다. 이 기간 중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을 본인명의로 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해 군복무 후에도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육성,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급 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해 세계 유수기업들은 이스라엘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도 자사의 가장 큰 자산은 이스라엘의 R&D센터라고 말할 정도로 그 경쟁력을 입증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선진기업들은 핵심인재를 외부수혈보다는 조직 내에서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한다. 고급인력시장이 변창한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선진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모든 기업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핵심인재는 희소하며 조직의 전략과 문화에 어울리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인재의 외부영입에 힘을 쏟는 우리 벤처기업들에게 재도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업 인재상이 정립된다면 도약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또한, 폐쇄성에 기반한 민족주의의 타파로 미국과 대만의 벤처클러스터가 그러했듯이 경쟁력 있는 외국자본과 해외인재의 유입에도 힘써야 하겠다.

실리콘밸리로
모이는 각국의
인적네트워크



지속적인 R&D와
혁신 기술개발



인재육성과 글로벌
시대의 국가관

